

말씀증언 | '화목한 가정이 되는 방법'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가정이 화목하려면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어머니에 대한 오해입니다. "엄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엄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압니다. 엄마는 항상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엄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버지는 좋은 음식 앞에서 배가 빨리 불러와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다 오해입니다. 모두가 우리 때문에 희생하시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부부가 있어서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있다는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어서 삶이 의미 있고 기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정이 화목하려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랑이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에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부부가 다툰 때에도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가정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모든 가정이 화목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 예배



기 독 교
대한감리회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예배에의 부름 인 도 자

즐거운 추석 명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편 136편 1-3절 인 도 자

찬 송 559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형제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고린도후서 5장 18-19절 인 도 자

말 씬 증 언 화목한 가정이 되는 방법 인 도 자

찬 송 301장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시편 136편 1-3절

- 1절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절 /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3절 /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경 말씀 - 고린도후서 5장 18-19절

- 18절 /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 19절 /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